



글로벌 조세 제도 변화와 보험회사의 대응방안¹⁾

이아름 연구원

- 2015년 7월 미국 컨설팅회사 PwC(PricewaterhouseCoopers)는 전 세계적으로 조세 제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조세 비용 관리 및 위험 관리는 보험회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함.²⁾
 - 현재 보험시장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조세 제도 변화에 따라 보험산업의 비용 부문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조세 비용 관리 및 조세 위험 관리 능력이 중요해질 것임.
- 최근 G20과 OECD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세회피처를 통한 기업자금 유출, 역외편법 증여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음.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ommon Reporting Standard, CRS)³⁾, 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⁴⁾ 방지를 위한 실행 계획,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oreign Account Tax

1) 동 보고서는 PwC에서 연재된 "Insurance 2020 & beyond: Equipping your business for the global tax revolution" 을 요약 정리한 것임.

2) PwC는 2012년부터 "Insurance 2020"이라는 주제로 향후 5년간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요인 5가지로 분류함. 사회적 요인은 고객 행동(사회적 네트워크, 고객 기대, 위험 인식 정도, 건강), 재능 고갈, 주주 신뢰,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분류되고, 기술적 요인은 정보 및 분석, 장치 및 감지기, 소프트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 의학적 진보 등으로 분류됨. 경제적 요인으로는 도시화, 신성장동력, 재정 압박,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위험 분담 및 전이, 사회보장 및 혜택, 유통업자 이전, 파트너십 등이 있음. 환경적 요인으로 기후 변화 및 재난, 지속가능성, 오염 등이 있으며, 정치적 요인으로는 규제개혁, 지정학적 위험, 정부주도적 자본주의 출현(Rise of state-directed capitalism), 테러, 과세, 이슬람법(Sharia) 준수(타카풀) 등이 있음.

3) 2014년 2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재정위원회는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을 마련하였으며, 협정 서명국은 보고대상인 되는 금융 계좌번호와 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소득 등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함. 단, 실제 교환시기는 협정국 중 양자간 협의에 따라 협정에 서명한 국가 중 두 국가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가능함. 2017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총 51개 국가 간 조세정보를 자동 교환하기로 서명하였으며, 그 중 47개국은 2016년부터 조기집행할 예정임.

4) 기업 전체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 이익을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 이전시키거나 과세소득 자체를 줄이는 행위임. OECD는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적 조세회피로 인한 이중비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15개 항목의 BEPS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그 중 일부

Compliance Act, FATCA)⁵⁾ 등이 마련됨.

- 또한, 영국은 수익우회세(Diverted Profits Tax)를 마련하였으며, 호주와 멕시코도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함.

■ 한편,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시장 환경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조세 관련 문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지만 보험회사의 조세 업무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은 미흡함.

- 보험산업은 국제 세법 및 회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조세 및 회계처리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조세 자동화 시스템 수립을 위해 조세함수(Tax Functions)⁶⁾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점검하여 조세 제도의 자동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조세함수 요인으로는 비용 절감, 데이터 분석 기술 발전, 리스크 관리 능력, 조세 및 경영프로세스 통합, 조세의 본질 변화, 업무 기능별 조세 전략, 보험산업 세계화 및 가상현실 대비 등이 있음.

■ 향후 보험회사들은 조세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 및 불확실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세, 리스크 관리, 회계처리 및 재정 시스템을 통합하고 국제 조세 제도 변화에 따라 기업 전략을 조정하며, 이에 대비해야 될 것임.

- 과거 금융회사는 조세 제도 변화에 따라 단순히 세율을 최소화하는 방법만 강구하였지만, 앞으로는 인력, 기반 시설, 그 외 다른 역량을 참고하여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지역을 찾아야 할 것임.
- 또한, 여러 조세 제도 변화에 따른 위험 및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경영혁신을 통해 신규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임.

(PwC 등)

는 2014년에 대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5년 말까지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확정할 예정임. 2014년에 제시된 대안으로는 디지털 경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 대응,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효과 중화,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제도 대응, 조세조약 남용 방지, 무형자산의 이전가격적인 측면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전가격분서화와 국가별 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양자간 조세조약을 수정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등이 있음.

- 5)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금융회사는 고객 중 미국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으로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한 역외탈세 방지법의 일부임.
- 6) 조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관계를 함수로 나타낸 것임.